

제12차 총회 언론 스크랩

- 2018.11.14.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중국 장가계시에서

"공동협력, 공동발전-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

김재원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8-10-30 10:27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2차 총회 단체사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5개 회원(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 공동발전 -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2차 NEAR 총회」를 의장단 체인 중국 후난성의 장가계시에서 개최했다. NEAR의 북한 회원단체인 '나선특별구'와 '함경북도'는 아쉽게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단체의 지사와 부지사급 고위인사들 및 각 회원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NEAR의 주요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펼쳐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훈춘(중국), 자루비노(러시아), 나진(북한) 지역의 개방과 발전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물류흐름의 정상화와 물류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물류분과위원회'와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인재교류를 위한 '국제인재교류분과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교역 증진을 위한 '국제전자상거래분과위원회' 등이 지난해에 새로 설치되었음이 보고됐다.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지역의 청년들간 교류 증진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 의약분야의 발전을 토의할 플랫폼인 '전통의약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일본의 아키타현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됐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의 보고인 '사하공화국'이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결정됐다. 아키타현의 신규회원 가입은 1996년 연합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본 회원단체의 신규 가입으로 앞으로 11개 일본 회원단체가 NEAR에서 활동하게 됐다.

'홍종경' NEAR 사무총장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역지방정부 간 협력기구인 NEAR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위한 활동을 가속해 나갈 귀중한 기회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NEAR 사무국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의장단체로 선출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하공화국'과 협력하여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는 "사하공화국은 NEAR의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진전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 NEAR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이틀째, 총회 참가자들은 장가계 천문산 일대와 무릉원 풍경구를 시찰하면서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호 우호증진의 기회로 삼았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 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산업별.주제별로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AER(유럽지방정부연합), R20(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정부행동기구)와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등 세계적인 국제기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여 NEAR의 창설을 주도함은 물론,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왕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사무국은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각국 회원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포항=김재원 기자 jwkim2916@

[프린트](#)[취소](#)

경북신문

프린트하기 닫기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로”

중국서 '제12차 NEAR 총회'

공동협력·발전 등 집중 논의

일본 아키타현 신규회원 가입

임성남 기자 / snlim4884@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30일(화) 19: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5개 회원국의 30여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 공동발전-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라는 주제로 '제12차 NEAR 총회'를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단체의 지사와 부지사급 고위인사들과 각 회원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NEAR의 주요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펼쳐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훈춘(중국), 자루비노(러시아), 나진(북한) 지역의 개방과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흐름의 정상화와 물류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물류분과위원회'와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인재교류를 위한 '국제인재교류분과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교역 증진을 위한 '국제전자상거래분과위원회' 등이 작년에 새로 설치됐음을 밝혔다.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지역의 청년들간 교류 증진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의약분야의 발전을 토의할 플랫폼인 '전통의약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일본의 아키타현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됐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의 보고인 '사하공화국'이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결정됐다.

아키타현의 신규회원 가입은 1996년 연합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본 회원단체의 신규 가입으로 앞으로 11개 일본 회원단체가 NEAR에서 활동하게 됐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

道, 동북아 대상 경제 교류·관광객 유치 나서

사회일반

f t v n g 기사내보내기

인쇄 - +

전영기자 2018-10-30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쫄부지사 후난성장과 협력 논의

오늘 사하공화국 총리와 면담

한·러지방협력포럼 도움요청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사드 금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교류 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11월 1일 중국을 방문 중이다. 29~30일 이틀 동안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총회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자체 대표가 참석한다.

29일 열린 NEAR 총회 개회 연설을 통해 전 경제부지사는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회원 단체 간 협력·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NEAR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을 만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30일엔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다음달 7~9일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북도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의료 관광객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총회 일정에 이어 전 경제부지사는 중국 해주 삼성전자와 협력사를 방문,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 지역 단체 협력·교류 강화”

윤김상만 | 승인 2018.10.30 22:00

**전우현 경북도부지사 中 방문
후난성 NEAR 총회 연설
중·러 등에 단체관광 요청**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9일 NEAR 총회에서 개회연설을 갖고 회원단체들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29일, 30일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이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나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경북으로의 의료 관광객 유치 협조를 당부했다.

총회 일정에 이어 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 단체관광단 경북 유치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만

[홈](#) > [뉴스](#) > [정치](#) > [자치행정](#)

道, 동북아 교류협력·관광객 유치 나선다

전우현 경제부지사, 4박5일 中 방문… NEAR 총회 참석

2018년 10월 30일 (화)

김우섭기자 ✉ kws@hidomin.com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 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 경제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이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를 만나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우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해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전달기

전우현 경북 경제부지사, 동북아 관광객 유치

NEAR 총회, 회원단체 간 교류 강조

이종팔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30일(화) 00:30

[경상매일신문=이종팔기자]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30일까지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총회에 참석차 29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NEAR'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게 될 전 경제부지사는 오는 11월 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먼저, 전 경제부지사는 이날 열린 총회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쉬다저 후난성장과의 면담에서 전 경제부지사는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가진 면담에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함께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총회 일정에 이어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중국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해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나선다.

한편, 경북도는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2005년부터는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으며, 이번 총회에는 이들 회원국가의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 인쇄하기

경북 경제부지사, 중국 경제교류.관광객 유치 나서

2018.10.30 11:03 입력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린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한국무역신문=정규상 기자]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현 부지사는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를 만나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 일정에 이어 전우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해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정규상 기자 qjeong88@naver.com

인쇄하기 창닫기

동북아 교류협력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윤 이강문 대기자 | ⓒ 승인 2018.10.29 17:52

NEAR총회 참석해 회원단체 교류 및 기업 단체관광단 유치 홍보



▲ 전우헌 부지사 NEAR 총회 참석 ⓒ뉴스타운

경북도는 전우헌 경제부지사가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참석을 위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경북도의 경제부지사가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1996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창설부터 경북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시아의 대표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박5일간의 일정 중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는 물론, 의장 단체인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나 그동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감사를 표하며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총회 이후 경북경제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해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문 대기자

주요뉴스/뉴스

NEWSIS 지방 > 대구/경북

경북도, 동북아 교류협력·관광객 유치에 속도

류상현 기자 | spring@newsis.com

등록 2018-10-29 17:08:08



【안동=뉴스시스】류상현 기자 = 29일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개막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0.29 (사진=경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스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동북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 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개회 연설에서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 관계를 자매결연으로 높여 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를 만나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 일정에 이어 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해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동북아 교류협력·관광객 유치 '잔걸음'

‘제12차 NEAR 총회’ 참석, 회원단체 교류 및 동북아 공동발전 모색

온라인 기사 2018년10월29일 17시02분

- 중국 हे주 삼성전자 등 방문... 기업 단체관광단 유치 홍보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다음달 1일까지 중국을 방문,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9~30일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총회에 참석, 회원단체 교류 및 동북아 공동발전을 모색 한 것.

이번 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우헌 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현 경제부지사

도에 따르면 전 부지사는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도 만나 다음달 7~9일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우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도 방문,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ilyo07@ilyo.co.kr

이 기사 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397

전우헌 경북 경제부지사, 동북아 교류협력 유치 등 쟁점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8.10.29 08:42 | 수정 : 2018.10.29 08:42

【대구=김장욱 기자】경북도는 전우헌 경제부지사가 지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29일 밝혔다.

전 부지사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총회에 참석한다. NEAR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전 부지사는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를 만나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총회 일정에 이어 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취소](#)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동북아 교류협력 관광객 유치 나서

中 해주 삼성전자 등 방문..기업 단체관광단 유치 홍보
(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뉴스일자 : 2018-10-29 16:51:27



29일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 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개회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현 부지사는 총회 일정 중 NEAR 회원단체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쉬다저 후난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NEAR 의장단체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난성과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우호교류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를 만나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북도의 의료관광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의료 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 일정에 이어 전우현 부지사는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를 방문해 기업 단체관광단을 위한 경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등 동북

아시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김상범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18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전국

경북도 NEAR 총회 참석...동북아 교류협력·관광객 유치 꾀 걸음

2018년 10월 29일 (월) 23:23:27

김종렬 기자 ✉ kjr21c@naver.com



▲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 참석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오늘(29일)부터 이틀간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 참석 경제·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합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어제(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NEAR 회원단체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의장 단체인 후난성 쉬다저 성장과 면담했습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NEAR 총회 개최 연설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글로벌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9일 중국 후난성 장가계시에서 열린 제12차 NEAR 총회에 참석한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개회 연설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전 경제부지사는 이어 차기 의장단체로 선정된 사하공화국 솔로도프 블라디미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7~9일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사하공화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 해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과 협력사를 방문해 관광 유치 홍보에도 나섭니다.

경북도는 1996년 NEAR 창설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을 포항시에 유치한 후 NEAR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NEAR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습니다.

© 불교방송(<http://news.bbs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새로운 동북아’ 번영의 시대로 가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총회

주요활동상황 점검·사업 논의

전통의약분과위 등 3개 신설

이준형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31일(수) 00:30

[경상매일신문=이준형기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공동협력, 공동발전 -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라는 주제로 제12차 NEAR 총회를 의장단체인 중국 후난성의 장가계시에서 개최했다.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5개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30여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EAR의 북한 회원단체인 ‘나선특별구’와 ‘함경북도’는 아쉽게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단체의 지사와 부지사급 고위인사들과 각 회원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NEAR의 주요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펼쳐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훈춘(중국), 자루비노(러시아), 나진(북한) 지역의 개방과 발전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물류흐름의 정상화와 물류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물류분과위원회’와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인재교류를 위한 ‘국제인재교류분과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교역 증진을 위한 ‘국제전자상거래분과위원회’ 등이 작년에 새로이 설치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지역의 청년들간 교류 증진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의약분야의 발전을 토의할 플랫폼인 ‘전통의약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일본의 아키타현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의 보고인 ‘사하공화국’이 향후 2년간 NEAR를 이끌어갈 의장단체로 결정되었다. 아키타현의 신규회원 가입은 1996년 연합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본 회원단체의 신규 가입으로 앞으로 11개 일본 회원단체가 NEAR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홍종경’ NEAR 사무총장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역지방정부 간 협력기구인 NEAR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위한 활동을 가속해 나갈 귀중한 기회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NEAR 사무국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의장단체로 선출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하공화국’과 협력하여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는 “사하공화국은 NEAR의 의장단체로서 동북아 지역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진전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 NEAR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이틀째, 총회 참가자들은 장가계 천문산 일대와 무릉원 풍경구를 시찰하면서 지방정부간 협력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호 우호증진의 기회로 삼았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산업별·주제별로 1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AER(유럽지방정부연합), R20(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정부행동기구)와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등 세계적인 국제기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여 NEAR의 창설을 주도함은 물론,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왕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무국은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각국 회원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url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9&idx=224356

Copyrights ©경상매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